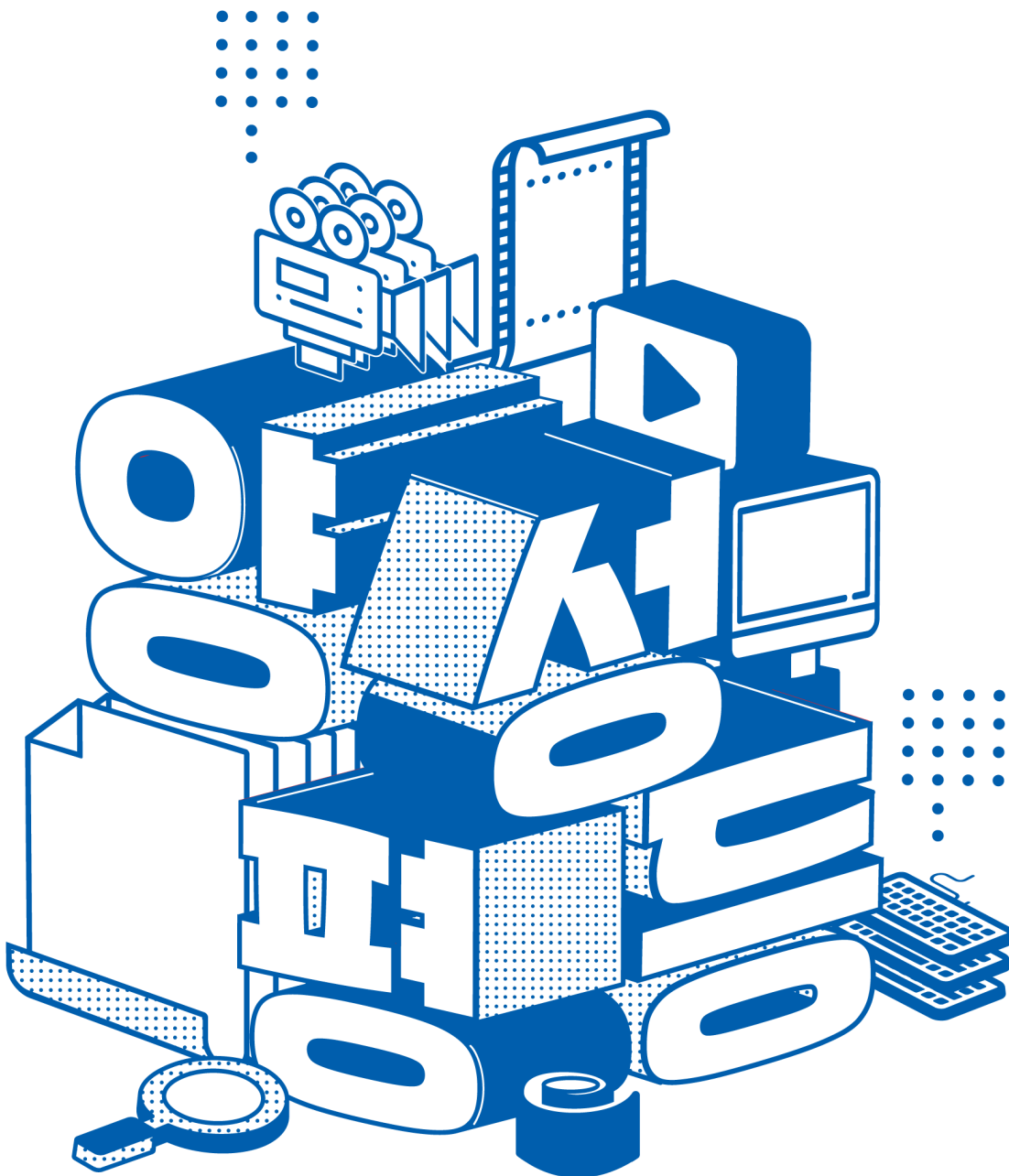


예능·오락 프로그램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들어가며

08

양적분석

12

질적분석

17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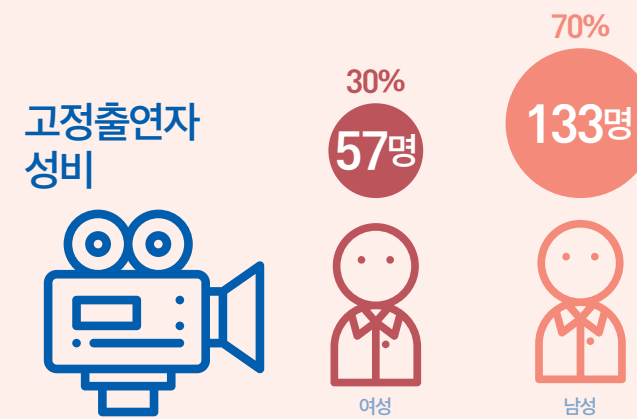
19

모니터링
내용

40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예능·오락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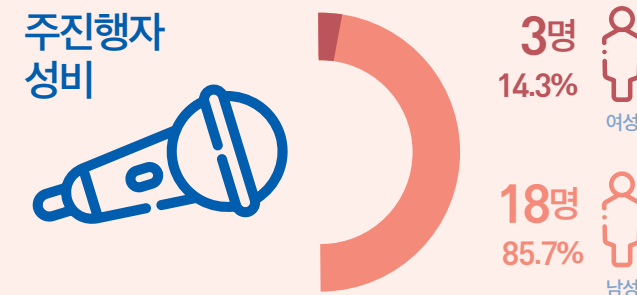
성평등적 사례

1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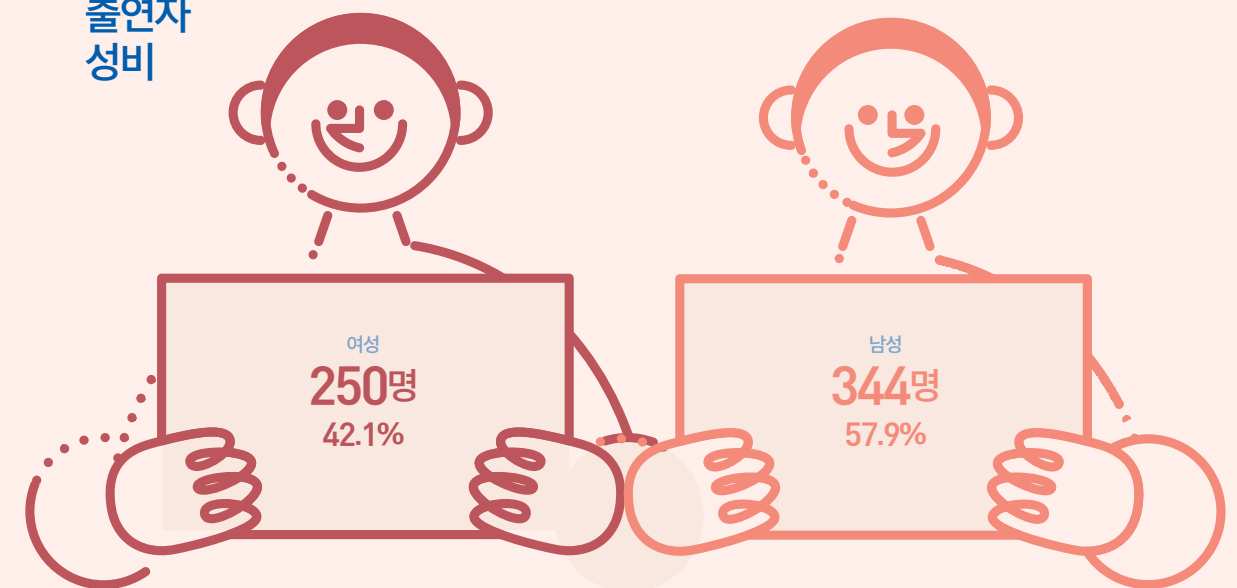


성차별적 사례

51건



출연자
성비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24일까지 방영분 중 3회분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tvN
 프로그램 수 | 18개 프로그램 (표1 참조)
 모니터 인원 | 18명

01
들어가며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예능·오락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채널A)과 케이블(tvN)의 18개 예능·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KBS2, SBS, MBC, JTBC, tvN 각각 2개 프로그램, KBS2, 채널A, MBN, TV조선 각각 1개 프로그램) 및 2017-18년도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사례가 많았던 프로그램 6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전국노래자랑	일/12:10
2		KBS2	살림하는 남자들 2	수/20:55
3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18:20
4			개그콘서트	일/21:15
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토/18:05
6		MBC	전지적 참견시점	토/23:05
7			나 혼자 산다	금/23:10
8			라디오스타	수/23:10
9			복면가왕	일/17:00
10	지상파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토/21:00
11			미운 우리 새끼	일/21:05
12	종합편성 채널	JTBC	아는 형님	토/21:00
13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목/22:00
14		채널A	아내의 맛	화/22:00
15		MBN	도시어부	목/23:00
16	케이블	tvN	속풀이쇼 동치미	토/23:00
17			수미네 반찬	수/20:10
18			코미디빅리그	일/19:45

(1) 출연자 성비

2019년 3월, 18개의 예능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42.1%(250명), 남성 57.9%(344명)를 보였다. 이는 20-30대 100인의 여성 지원자들로만 구성된 TV조선의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의 출연자 수를 포함한 값으로, <내일은 미스트롯>의 출연자가 전체 여성 출연자의 30%를 차지했다.(표2 참고)

[표2] 전체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전국노래자랑	49	47
2	살림하는 남자들 2	12	13
3	슈퍼맨이 돌아왔다	9	21
4	개그콘서트	16	51
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3	42
6	전지적 참견시점	4	8
7	나 혼자 산다	5	11
8	라디오 스타	1	15
9	복면가왕	14	26
10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2	5
11	미운 우리 새끼	9	10
12	아는 형님	1	12
13	내일은 미스트롯	68	8
14	아내의 맛	14	15
15	도시어부	1	7
16	속풀이쇼 동치미	16	14
17	수미네 반찬	3	6
18	코미디빅리그	13	33
합 계		250	344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높았고(43.3%), 20대가(22.5%)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도 여성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다.

여성은 주로 30대 이하의 출연자가(72.8%), 남성은 30대 이상의 출연자가 (75.6%)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7년 3월 모니터링부터¹ 2018년 3월 모니터링²동안 확인되었다. 다만, 2018년 7월 모니터링³에서는 중년 여성의 예능 출연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 3월 모니터링에서 이전과 같은 경향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표3 참고)

[표3]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15 (2.5%)	28 (4.7%)	145 (24.4%)	202 (34%)	101 (17%)	61 (10.3%)	26 (4.4%)	12 (2%)	4 (0.7%)	594 (100%)
여성	5 (0.8%)	26 (4.4%)	73 (12.3%)	78 (13.1%)	29 (4.9%)	17 (2.9%)	11 (1.9%)	8 (1.3%)	3 (0.5%)	250 (42.1%)
남성	10 (1.7%)	2 (0.3%)	72 (12.1%)	124 (20.9%)	72 (12.1%)	44 (7.4%)	15 (2.5%)	4 (0.7%)	1 (0.2%)	344 (57.9%)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눈 후, 역할 비중에 따라 주진행자/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보조출연자로 구분하였다.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 주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찰 예능의 경우 진행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모두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85.7%(18명), 여성이 14.3%(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6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해 7월 진행된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남성이 73.2%(52명), 여성이 26.8%(19명)로 집계되었던 것⁴을 고려하면, 여전히 남성이 예능·오락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 출연자의 경우 남성이 70%(133명), 여성이 30%(5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등장했다. 전체 여성 중 68.4%는 보조 출연자/초대손님으로 등장했는데⁵, 이 수치에는 <미스트롯> 프로그램 오디션 지원자 63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여성 보조 출연자/초대 손님에서 <미스트롯>의 지원자 63명을 제외하면 보조 출연자/초대 손님에서도 남성이 60%, 여성이 40%를 차지해 전 역할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4 참고)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고정 출연자	보조 출연자 / 초대손님	기타	합계
전체	21(100%)	38(100%)	190(100%)	336(100%)	9(100%)	594
여성	3(14.3%)	15(39.5%)	57(30%)	171(50.9%)	4(44.4%)	250
남성	18(85.7%)	23(60.5%)	133(70%)	165(49.1%)	5(55.6%)	344

1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2 2018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3)
3 2018년 7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7)
4 2018년 7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7)
5 <내일은 미스트롯>의 여성 지원자는 '보조출연자'로 체크했다. 이는 서바이벌 오디션의 특성상 한 번 탈락하면 프로그램의 등장 기회를 잃게 되는 여성지원자는 안정적으로 등장해 프로그램을 이끄는 고정 출연자보다는 불안정한 보조 출연자의 위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역할에 따른 성별 연령대

역할에 따라 예능 제작진이 선호하는 성별 연령대가 다를까? 역할을 구분해 성별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30-50대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50대 남성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보다 주진행자에서는 무려 8배(여성 2명, 남성 16명), 고정 출연자에서는 3배(여성 32명, 남성 92명) 더 등장했다. (표5 참고)

[표5] 역할별 연령대 (단위 : 명)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연령대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합계
역할	주진행자	0	2 (9.5%)	1 (4.8%)	0	16 (76.2%)	2 (9.5%)	21 (100%)
	보조진행자	4 (10.5%)	10 (26.3%)	1 (2.6%)	3 (7.9%)	20 (52.7%)	0	38 (100%)
	고정 출연자	16 (8.4%)	32 (16.9%)	9 (4.7%)	38 (20%)	92 (48.4%)	3 (1.6%)	190 (100%)
	보조 출연자/ 초대 손님	84 (25%)	79 (23.5%)	8 (2.4%)	43 (12.8%)	109 (32.4%)	13 (3.9%)	336 (100%)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164명, 27.6%)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개그맨/코미디언(154명, 25.9%)이 그 뒤를 이었다. 직업군별 성비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개그맨/코미디언과 특정 분야 전문가의 차이가 컸다. 개그맨/코미디언의 경우 남성(116명)이 여성(38명)보다 약 3배 많았고, 특정 분야 전문가의 경우 남성(19명)이 여성(6명)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참조)

[표6]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성	38	20	74	3	4	1	2	0	11	1	0	0	0
남성	116	27	90	0	18	0	3	0	18	5	0	0	2
계	154	47	164	3	22	1	5	0	29	6	0	0	2
직업 번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9	계
여성	7	6	28	1	5	17	9	0	4	7	0	12	250
남성	2	19	3	0	3	0	9	1	3	11	0	14	344
계	9	25	31	1	8	17	18	1	7	18	0	26	594

직업분류번호

- ① 개그맨/코미디언
- ② 배우
- ③ 가수
- ④ 모델
-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 ⑥ 변호사
- ⑦ 의사
- ⑧ 비평가/평론가
- ⑨ 언론인(기자 등)
-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 ⑪ 작가
- ⑫ 상담사
- ⑬ 교수
-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 ⑯ 학생
- ⑰ 일반시청자
- ⑱ 회사원
- ㉔ 주부
- ㉕ 자영업자
- ㉖ 운동선수
- ㉗ 무직
- ㉘ 모름
- ㉙ 매니저
- ㉚ 기타____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15건, 성차별적 내용은 51건으로 성평등적 내용보다 성차별적 내용이 약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한 내용이 11건(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체성과 현실반영성이 각각 2건(13%)있었다. 지난 7월 모니터링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가정 내 다양한 성역할 수행이 많이 다뤄진 변화를 보였다. 성차별적인 내용은 지난 7월⁶에 비해 전체적인 건수가 19개 증가했다. 이번 3월 모니터링에서는 다양한 섹슈얼리티 또는 연애/가족의 형태에 부정적인 편견 조성 내용이 다뤄진 ‘기타’ 항목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모니터링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표7 참조)

[표7]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18년 7월	3월			18년 7월	3월
성 평 등 적 내 용	주체성	4 (50%)	2 (13.3%)	성 차 별 적 내 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2 (37.5%)	23 (45.1%)
					여성의 주체성 무시 / 남성 의존성향 강조	6 (18.8%)	2 (3.9%)
	현실반영성	3 (37.5%)	2 (13.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3.1%)	1 (1.9%)
					외모지상주의 조장	5 (15.6%)	11 (21.5%)
	다양성	1 (12.5%)	11 (73.3%)		여성의 성적대상화	5 (15.6%)	5 (9.8%)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1 (3.1%)	-
	대안성	-	-		선정성	2 (6.3%)	3 (5.8%)
					기타	-	6 (11.7%)
합계		8	15	합계		32	51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는 KBS2에서 4건(26.7%)의 성평등적 내용이 발견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성차별적 내용 또한 KBS2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17건, 33.3%) 지난 7월 모니터링에서 성차별 적인 내용이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었던 TV조선⁷은, 이번에도 두 번째로 많은 성차별 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표8 참조)

[표8]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 조선	tvN	MBC every1	합계
성평등	-	4 (26.7%)	3 (20%)	1 (6.7%)	-	2 (13.3%)	1 (6.7%)	3 (20%)	1 (6.7%)	-	15
성차별	-	17 (33.3%)	4 (7.8%)	3 (5.8%)	1 (1.9%)	-	7 (13.7%)	11 (21.5%)	8 (15.6%)	-	51

6 2018년 7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7)
7 2018년 7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7)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도시어부> ————— 채널A, 3월 14일

<도시어부>의 유일한 고정 여성 출연자인 장도연은 프로그램 내에서 전형적인 젊은 여성의 캐릭터로 소비되지 않는다. 기존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여성 고정출연자에게 기대되는 ‘귀여움’, ‘꽃’과 같은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본인의 직업인 개그맨의 장점을 발휘해 어느 상황에서도 웃기며 즐겁게 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낚시 경험이 풍부한 다른 남성 출연자(이경규, 이덕화)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도연의 주체성이 강조되었기에 가능한 캐릭터다.



(2) 현실 반영성

<라디오스타> ————— MBC, 3월 20일

<라디오스타> ‘오 마이 딸링’ 특집편에 설운도 장범준 심지호 고영배 네 사람이 출연하여 육아와 살림에 대한 노하우를 전한다. 심지호는 육아는 아빠가 돕는 게 아니라 “육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한다. “육아는 육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사가 동반되어 혼자서 절대 못해요. 그걸 알아서 나가 있으면 아내가 걱정이 돼요. 아빠가 육아를 돕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해요”라며 육아와 가사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의 영역임을 강조한다.



<나혼자산다> ————— MBC, 3월 1일

모델 데뷔 20주년 기념 여행에서, 한혜진은 모델 일을 해왔던 20년 동안 ‘여성’ 모델이자 연예인이기에 감수해야만 했던 외모지적과 편견들에 힘들었음을 고백한다. 한혜진의 인터뷰를 보며 다른 여성 출연자인 박나래와 화사 또한 본인들이 ‘여성’ 연예인이기에 받았던 차별(외모지적, 짧은 수명)에 힘들었음을 울며 고백한다. 이는 연예계의 성불평등적인 젠더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남성의 목소리가 아닌 당사자인 여성연예인들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며 나아가 여성들 간의 연대까지 보여준 성평등적인 장면이다.



(3) 다양성

<아내의 맛> ————— TV조선, 3월 5일

<아내의 맛>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양가 합동 생일 파티를 열기로 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슨(남)은 파티장식을, 개그맨인 홍현희(여)는 파티 진행을 맡고 음식은 둘 다 잘하지 못해 배달을 시킨다. 이는 가사노동을 둘러싼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가 잘하는 것을 맡아 즐기는 건강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슈퍼맨이 돌아왔다> ————— KBS2, 3월 10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수 장범준의 딸 조아는 화장과 드레스를 좋아하는 아이이다. 이 자체는 문제적이지 않으나 제작진은 자막으로 ‘멋부리기 좋아하는 천생소녀’라고 표현함으로써 꾸밈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적편견에 의한 묘사를 했다. 이는 여성다움을 규정짓는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살림하는 남자들2> ————— KBS2, 3월 13일

<살림하는 남자들2>의 진행자 최양락은 아내 율희의 방송 일정을 도와주는 남편 최민환의 행동을 ‘오

버'라고 규정지며 “남성들은 저런 행동에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가부장제를 수행하는 성역할에서 벗어난 남성은 ‘남성성’이 결여된 존재이며, 같은 남성 집단에서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성차별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미운 우리 새끼> ————— SBS, 3월 3일

<미운 우리 새끼> 고정 패널인 서장훈이 어머니들에게 살면서 남편들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홍진영의 어머니가 성진 조직의 초록색 스웨터가 속살을 노출 시킨다고 생각한 남편이 몰래 버리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답한다. 이에 서장훈은 “노출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 게 아니냐..”라고 말한다. 이는 여성의 옷차림을 ‘노출’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아내나 여자 친구의 옷이 ‘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두둔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발언이다.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코미디 빅리그> ————— tvN, 3월 17일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 <흔들려>에서는 홍윤화와 김민기의 데이트 중에 홍윤화의 전 애인 문세윤이 찾아온다. 홍윤화는 우리는 헤어진 사이라고 말하지만, 문세윤은 ‘너는 그렇지지만 나는 아직 아니’라며 홍윤화 데이트 장소를 따라다닌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희화화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내일은 미스트롯> ————— TV조선, 3월 7일

‘100억’의 가치를 가진 트로트 가수를 선발한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트롯>은 미인대회의 포맷을 차용해 끊임없이 출연자들의 외모를 평가한다. 자막은 “예쁜 애 다음으로 등장한 예쁜 애와 같은 표현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조장한다.



<라디오스타> ————— MBC, 3월 6일

방송은 게스트로 출연한 이주연을 ‘넘사벽 얼짱’, ‘미모 가리개’, ‘5대 얼짱’이라는 자막, 사진, 묘사를 통해 외모를 강조하는 토크를 진행한다. 이주연은 “그때 날렸죠. 지금 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5대 얼짱으로 박한별 언니, 구혜선 언니, 저”라고 멘트하며 “내가 등교하면 남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힘들었는데 우산으로 ‘미모를 가릴 수 있어서’ 비오는 날을 좋아할 정도였다”며 그때의 인기를 묘사한다. 이처럼 이주연의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내일은 미스트롯> ————— TV조선, 3월 7일

미스트롯은 여성 성 상품화 논란으로 2002년 지상파에서 퇴출된 미인대회가 컨셉이다. 오로지 여성 참가자들로 구성되며 참가자들 모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섹시하거나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 이는 참가자들의 몸을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객체로 전락시키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



한 출연자가 노래 부르기 전 자기소개에서 전직 치어리더임을 밝히자마자, 심사위원인 이무송은 합격을 의미하는 하트를 바로 누른다. 이는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무송 부인이자 또 다른 심사위원인 노사연이 화를 내면서, 출연자는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남성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6) 선정성

<내일은 미스트롯> ————— TV조선, 3월 21일

위 사진은 <내일은 미스트롯>의 본선 1차 현역부 팀 미션에 임하는 출연자들의 댄스 장면이다. 지나치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의상(가죽, 망사, 쇠사슬)을 입고나온 출연자들은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추고, 이런 출연자들을 보며 남성 심사위원들은 '호흡곤란'을 내비친다.



(7) 기타

<속풀이쇼 동치미> ————— MBN, 3월 16일

여예스더(의사)가 본인의 출산 이야기를 나누자 의사 함익병은 '여'의사들이 아이를 낳으면 동료 의사들이 대신 당직을 서줘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여예스더는 본인은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4주 만에 출근했다고 말하고 함익병은 어쨌든 4주 동안 동료 의사가 당직을 서준 것이라며 반박한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임금 보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함익병이 언급한 '피해'는 사실상 국가 지원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방송에서는 이 문제가 여예스더 개인에게서 비롯된 문제처럼 다루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논의를 오로지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편견을 조장한다.



04 나가며 : 2019년 3월 예능 속 여성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2019년 2월 28일 새롭게 등장한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트롯>은 역대 종편 예능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⁸ 여성 성 상품화 논란으로 2002년 지상파에서 퇴출된 미인대회 컨셉 안에서 20-30대로 구성된 1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끊임없이 외모 평가를 당하고, 더 나아가 군부대 특집과 같은 미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적 대상화되기도 한다.

<내일은 미스트롯>은 2019년 3월 현 한국 예능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18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비 분석결과,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85.7%(18명), 여성이 14.3%(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6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정 출연자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70%(133명), 여성이 30%(5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율로 고정 출연자로 등장했다. 특히 전체 여성 중 68.4%는 보조 출연자/초대 손님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남성 중심적 예능 속 여성의 대다수가 1회성의 게스트나 보조 출연자로 등장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 예능 속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지원자(내일은 미스트롯, 전국노래자랑, 불후의 명곡), 일회성의 게스트 출연(라디오스타, 아는 형님)이나 홍일점 MC(도시어부, 수미네 반찬)정도로, 매우 한정적이다. 이 한정적인 자리에서 나이트 여성의 입지는 더욱 좁다.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에서 여성은 20대 출연자가 (12.3%) 30대(13.1%) 다음으로 많았지만 40대 여성 출연자는 고작 29명(4.9%)에 그쳤다. 30대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똑같이 72명, 12.1%를 차지해 30대와 40대가 고른 비율로 TV에 등장한 남성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특히 30-50대가 맡는 역할을 비교해보면 30-50대 여성 중 14%만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반면(주 진행자, 고정 출연자), 남성은 무려 31.4%를 차지했다. 이는 남성 연예인의 커리어가 쌓이는 시간 동안, 나이 든 여성 연예인은 밀려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출연자/초대손님으로 등장한 여성에게는 끊임없는 외모 평가와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라디오스타>의 유일한 여성 출연자인 이주연은 '얼짱'이라는 타이틀 하에 방송 내내 본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내일은 미스트롯>의 여성 지원자들의 의상은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채 '미스트롯'이 적힌 하얀 띠를 두르고 카메라 앞에서 성적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특히 트로트 실력으로 경쟁하기 위해 참가한 지원자가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합격 버튼을 누르는 남성 심사위원 이무송의 모습은 <내일은 미스트롯>이 여성 출연자를 소비하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이 좋게, TV에 고정적으로 출연할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형화된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성 고정 패널이 남성의 수와 비슷하거나 많은 <아내의 맛>, <미운 우리 새끼>, <속풀이쇼 동치미>의 경우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거나,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인 역할 구분 속에서의 캐릭터가 다뤄진다. <아내의 맛>의 김연지는

8 『미스트롯' 역대 종편 예능 최고 시청률 11.2%.김양 탈락-송가인 가사회생』텐아시아, 2019.04.05

집들이에 온 남편 친구들과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집안 살림 능력을 평가당하며, <속풀이쇼 동치미>의 여에스더는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함익병(남성)에게 4주 출산 휴가를 낸 것을 비난당해야 했다.

여전히 수많은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모니터링에 비해 다양성 콘텐츠가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살림남2>의 최민혁과 <라디오스타>의 심지호는 육아와 가사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성불평적인 젠더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19년 3월 예능 프로그램 속 가장 빛나는 장면은 <나 혼자 산다>의 한혜진의 고백일 것이다. 늘 외모평가를 달고 사는 모델 일을 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한혜진과, 한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는 화사와 박나래가 보여준 연대는 앞으로 한국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희화화를 기반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많은 유머·개그 코드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는 재미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예능. 이런 새로운 예능이 제작되었을 때, 누구나 웃으며 한국 예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05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⁹⁾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채널A <도시어부> 03.07~03.21 (79~81회)	<도시어부>의 유일한 고정 여성 출연자인 장도연은 프로그램 내에서 전형적인 젊은 여성의 캐릭터로 소비되지 않음. 기존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여성 고정출연자에게 기대되는 ‘귀여움’ ‘꽃’과 같은 확실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본인의 직업인 개그맨의 장점을 발휘해 어느 상황에서서도 웃기고 즐겁게 임하려는 모습을 보임. 이는 낯시 경험이 풍부한 다른 남성 출연자(이경규, 이덕화)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도연의 주체성이 강조되었기에 가능한 캐릭터임.	
tvN <수미네 반찬> 03.06~03.20 (40~42회)	tvN ‘수미네 반찬’은 오랜 연에게 생활과 성공한 요식업 사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육쟁이 할머니’라는 고정된 역할로만 소비되었던 김수미 배우를 주체적으로 다룸. 그동안 여성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컨셉은 오전 프로그램이나 아침 토크쇼에서, 남자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9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컨셉은 “셰프테이너”(셰프+엔터테이너)라는 호명 하에 저녁 예능 시간대에서 다루어졌음. 수미네 반찬은 이러한 푸드예능의 성차별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 김수미의 예능감과 전문성을 활용해 김수미가 주체적으로 저녁시간 푸드 예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줌. 김수미는 자신의 요리철학을 확고히 전파하면서도, 프로그램 말미 자신의 레시피를 응용해 젊은 요리사들이 만드는 음식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건강한 주체성을 보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C <라디오스타> 03.20 (609회)	<라디오스타> “오 마이 딸링” 특집편에 설운도 장범준 심지호 고영배 네 사람이 출연하여 육아와 살림에 대한 노하우를 전함. 심지호는 육아는 아빠가 돕는 게 아니라 “육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육아는 육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사가 동반되어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걸 알아서 나가 있으면 아내가 걱정이 돼요. 아빠가 육아를 돕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해요”라며 육아와 가사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의 영역임을 강조함.	
MBC <나 혼자 산다> 03.01 (283회)	모델 데뷔 20주년 기념 여행에서, 한혜진은 모델 일을 해왔던 20년 동안 ‘여성’ 모델이자 연예인이었기에 감수해야만 했던 외모 지적과 편견들에 힘들었음을 고백함. 한혜진의 인터뷰를 보며 다른 여성 출연자인 박나래와 화사 또한 본인들이 ‘여성’ 연예인이기에 받았던 차별(외모지적, 짧은 수명)에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힘들었음을 울며 고백함. 이는 연예계의 성불평등적인 젠더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남성 목소리가 아닌 당사자인 여성연예인들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며 나아가 여성들 간의 연대까지 보여준 성평등적인 장면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17 (740회)	아빠(장범준)이 아들과 마트에 나와 기저귀를 갈아주는 장면.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에서 아빠가 기저귀를 교체하는 장면은 부모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난 다양성을 보여줌.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10 (739회)	박주호가 자녀들과 외출한 장면으로 딸(나은)의 옷과 머리핀을 남동생과 동일한 파랑색으로 입혔다. 여자 아이는 핑크라는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임.	
SBS <미운 우리 새끼> 03.03 (128회)	한예슬이 혼자 이스탄불 여행했을 때 쿠테타가 발생해 밤새 호텔에 갇히고 혼란스러운 공항에서 간신히 표를 구했던 경험을 공유함. 이때 한예슬은 자신을 “남자아이 같은 성향이 있어서 활동적이고 겁도 없고...”라고 설명하지만 프로그램 자막은 “남자아이 같은”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생각보다 모험심이 강한 예슬”이라고 씬. 고착화된 성역할을 반영한 출연자의 발언을 제작진이 적절히 수정한 사례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채널A <도시어부> 03.07 (79회)	79화부터 81화에 걸쳐 유일한 여성 출연자인 장도연이 점심을 준비하기 보다는 장도연보다 요리를 잘 하는 이경규가 점심을 준비함. 특히 81화에서 게스트 양세찬은 본인이 누나(장도연)보다 요리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리솜씨가 더 나은 사람이 식사준비를 함. 또한 간단히 라면을 끓여먹거나 재료를 다듬고 하는 장면에서도 여성 남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그 부분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다양성을 보여줌.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03.13 (105회)	아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기를 돌보고 아내 직장 동료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모습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줌.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03.06 (104회)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손님맞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이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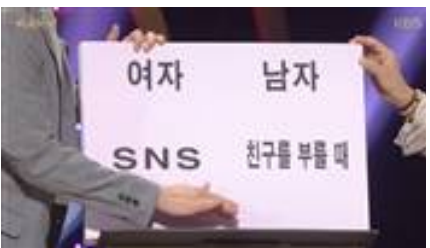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아내의 맛> 03.05 (37회)	이지호(김민의 남편)는 딸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며, 딸과 같이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등 기존의 권위적인 가부장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줌	 
	이지호(김민의 남편)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과거 아내가 난산으로 출산의 어려움을 겪었고 결혼 초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며 부부가 함께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왔고 자신이 더 많이 변화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줌	
	<아내의 맛> 홍현희, 제이썬 부부는 양가 합동 생일파티를 열기로 함.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썬(남)은 파티장식을, 개그맨인 홍현희(여)는 파티 진행을 맡고 음식은 둘 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배달시킴. 가사노동을 둘러싼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가 잘하는 것을 맡아 즐기는 건강한 다양성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C <나 혼자 산다> 03.01 (283회)	김충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애고 많은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발언함. 이는 딸은 애고가 많고 아들은 무뚝뚝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됨. 하지만 김충재의 말을 들은 박나래와 한혜진이 "딸이라고 애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로 잡고 동시에 김충재(아들)가 본인들(딸)보다 애고 있다며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줌.	
MBN <숙풀이쇼 동치미> 03.09 (330회)	330회 동치미쇼는 재혼 시 마주하게 되는 고충(주위의 시선, 자녀, 개인적인 트라우마 등)을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재혼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써 인정함.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10 (739회)	(장범준)딸이 엄마 설거지를 도와는 장면에서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는 착한 만딸'이라는 자막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만딸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착하고 성숙한 아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시킬 수 있음.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17 (740회)	아빠 장범준이 자녀들과 옷을 사러 가는 장면에서 누나가 남동생 옷으로 '치마'를 말하자 '치마는 아니 됩니다' 자막으로 표시함. 이는 의상을 성별로 분류하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10 (739회)	아빠는 아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엄마는 딸과 앞치마를 입고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가 강요하는 젠더 역할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수 장범준의 딸 조아는 화장과 드레스를 좋아하는 아이임. 이 자체는 문제적이지 않으나 제작진은 자막으로 '멋부리기 좋아하는 천생소녀'라고 표현함으로써 꾸밈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적편견에 의한 묘사를 함. 이는 여성다움을 규정짓는 고정관념을 조장함.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03.03 (738회)	나은이가 등장하자 승재가 달려가 나은이 손을 잡고 오는 장면. 나은과 승재가 각각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성애 중심적 연애관과 연결시켜 자막을 내보냄. 나은의 경우 남성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승재의 경우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남성으로 그려냄으로써 성역할을 고착화함.	
SBS <김병만의 정글의법칙> 03.02 (353회)	'전사'는 전투하는 군사, 제일선에 나서 힘껏 일하는 일꾼을 말함. 방송은 전사 앞에 '여'를 붙임으로써 전선에서 힘껏 일하는 것은 남성만의 영역이기에 여성이 앞서 일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이는 여성혐오적 표현임.	
KBS2 <개그콘서트> 03.10 (990회)	<러브라더>의 서태훈과 이세진은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기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함.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살펴보려면 여자는 SNS를, 남자는 친구를 부를 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함. 이처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성별 차이를 강조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개그콘서트> 03.10 (990회)	<러브라더>에서 박영진은 결혼 2년차여서 행복하다고 반어법으로 말하며 아내가 주말에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아내의 쇼핑 등을 희화화함. 이는 전업주부 여성은 '귀찮게 잔소리 하며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복 재생산 함.	
	<안녕하세요>코너에서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 정장을 입음으로써 색깔을 통해 성별을 구별 짓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현함.	
KBS2 <살림하는 남자들2> 03.13 (105회)	마음이 심란한 아내에게,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차려'라고 말함. 화가 난 아내는 '당신이 차려먹어'라고 소리치지만, 남편은 '이 사람이 일하고 온 사람보고 차리라 고 하나!'라며 오히려 더 역정을 냄. 가사노동도 노동이며 전업주부는 노동자로서 본인 컨디션에 따라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님에도, 남편의 발언은 전업주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남편의 밥을 차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과소평가된 사고를 보여주며 동시에 가사노동은 당연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살림하는 남자들2>의 진행자 최양락은 아내 율희의 방송 일정을 도와주는 남편 최민환의 행동을 '오버'라고 규정지으며 '남성들은 저런 행동에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말함. 이는 가부장제를 수행하는 성역할에서 벗어난 남성은 '남성성'이 결여된 존재이며, 같은 남성 집단에서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성차별적인 사고를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N <코미디빅리그> 03.17 (304회)	이국주는 '남자가 갖지 못한 여자들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나친 일반화를 통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함	
SBS <미운 우리 새끼> 03.17 (130회)	김종국의 집에 방문한 하하가 입덧이 심한 아내 때문에 먹지 못했던 김치를 먹을 생각에 들떠있는 장면. 그 장면을 보던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종국의 어머니는 "하하 와이프가 착해요. 요즘 힘들어서 셋까지 안 낳잖아요" 라고 발언하자 다른 출연자들이 동조함. 이는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성의 미덕을 출산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발언임.	 
TV조선 <아내의 맛> 03.05 (37회)	신혼집 집들이에 유상무 어머니가 오셔서 김연지의 식사준비를 도와줌. 집들이에 온 유상무 친구들은 끊임없이 음식 맛을 통해 김연지의 며느리와 부인으로써의 덕목을 평가함. 이는 요리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을 고착화함.	
	집들이 손님으로 온 장동민이 유상무의 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점수를 물어보니 살림을 잘 못하니깐 70점이라고 하며 1년 뒤에 살림을 가르쳐 100점을 만들겠다고 함. 며느리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아내의 맛> 03.12 (38회)	함소원의 시어머니가 둘째 손자를 아들이 게 해달라고 돌하르방에게 기원하는 장면 에서 하르방을 '프로아들메이커'라는 자막 으로 명명하며 남아선호사상을 강화시킴. (실제 프로그램에서 함소원의 시부모님은 아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	
TV조선 <아내의 맛> 03.05~03.12 (37~38회)	<아내의 맛>에 출연한 양미라 정신욱 커플 은 둘 다 직업이 있음에도 여성인 양미라가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불평등한 부부 관계 를 고스란히 보여줌. 정신욱은 아침에 일어 나 아내에게 당연하다는 듯 밥을 달라고 하 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강아지와 놀다가 차려놓은 밥을 먹음. 또한 양미라는 게임하는 남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등 가사노동이 당연히 여성의 몫인 것처럼 보 이게 함.	 
MBC <나 혼자 산다> 03.15 (285회)	이시연, 기안84, 성훈은 홍콩 여행을 가고, 이시연은 '사나이들의 애니메이션'방을 준 비했다며 들뜸. 이시연은 히어로 영화인 '아이언 맨'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디즈니 공 주를 예약했고 출연자들에게 웃음거리로 소비됨. 이는 히어로물은 '사나이(남성)'의 전유물이며, 공주 캐릭터는 남성에게는 적 합하지 않는 '여성적'인 것이라는 성별 고정 관념을 조장함.	 
MBC <나 혼자 산다> 03.01 (283회)	혼자 사는 김충재 집에 김충재의 엄마가 찾 아와 아들의 음식을 챙겨줌. 이 모습을 본 스튜디오 출연자들은 "엄마들은 다 저런 다"며 '엄마'라는 역할에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N <속풀이쇼 동치미> 03.09 (330회)	금보라는 남편이 자신과 재혼한 이유로 자 신에게는 싱그러운 미혼여성은 갖지 못한 육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 '싱그러웠다'의 사전적 의미는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있다는 뜻으로 미혼여성의 젊 음을 강조하는 맥락임. 여성에게는 젊음이 미덕임을 내포하는 여성혐오적 표현.	
MBN <속풀이쇼 동치미> 03.16 (331회)	여예스더가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4 주만에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하자, 김영 옥과 사미자는 본인들은 1주일 만에 방송 복귀 했었기에 4주 출산휴가를 가진 여예 스더가 '꿈 속에서 사는 왕비'같다고 비난 함. 출산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드 는 일을 오직 여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로 여기며, 이 과정에서 아빠(남성), 혹은 국가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음. 더불어 여성 은 출산 후 본인의 육체 및 정신적 건강(생 신건강권)을 살필 권리를 법적으로 자님에 도 산모의 건강보다 자식 또는 직장을 우선 하는 가부장적인 발상.	
	권영찬은 보통 아들은 부모에게 카드를 줄 뿐이지만 본인은 3형제의 막내이기에 본인 이 부모를 챙기는 '딸 노릇'을 한다고 말함. 이는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의 주체를 여성 으로, 경제적인 주체를 남성으로 규정한 발 언.	
	331회 속풀이쇼 동치미는 '시댁에 손주 말 기지 마라' 주제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중에 어디에 손주 육아를 맡기는 게 좋을 지 논의함. 엄마(여성)에서 친정엄마 혹은 시어머니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독박 돌봄 노동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 없이, 시댁과 친정에 맡길 때의 장단점에 비교하는 데 그 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담론을 반복하 는데 그침.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SBS <미운 우리 새끼> 03.03 (128회)	<미운 우리 새끼> 고정 패널인 서장훈이 어머니들에게 살면서 남편들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홍진영의 어머니가 성긴 조직의 초록색 스웨터가 속살을 노출시킨다고 생각한 남편이 몰래 버리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답함. 이에 서장훈은 “노출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게 아니냐.”라고 말함. 이는 여성의 옷차림을 ‘노출’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아내나 여자친구의 옷이 ‘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두둔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발언임.	 
tvN <수미네 반찬> 03.20 (42회)	‘묵은지비지찌개’ 조리 중 고추의 크기에 대해 김윤아가 다른 출연자들에게 “청양고추 홍고추는 그것보다 얇게 썰으셨어요”라고 알리자 이를 지켜보던 김수미가 김윤아 남편 김형규에게 “정말 보석 같은 와이프 잘 얻었다” 라고 말하고 동일 내용이 자막으로 노출됨.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얻다’는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 의 뜻을 지님. ‘남편을 얻었다’라는 대체된 표현이 존재하기는 하나, ‘좋은 남편을 얻었다’는 표현보다 ‘좋은 남편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임을 감안할 때, 결혼 관계에서 여성의 남성 의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N <코미디 빅리그> 03.17 (304회)	홍윤화와 김민기의 데이트 중에 홍윤화의 전 애인 문세윤이 찾아옴. 홍윤화는 우리는 헤어진 사이라고 말하지만, 문세윤은 ‘너는 그렇겠지만 나는 아직 아니’라며 홍윤화 데이트 장소를 따라다님. 이는 데이트 폭력을 희화화 한 장면임.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03.09 (393회)	뮤지컬 배우 민영기의 아내인 배우 이현경은 남편이 무대에 설 때마다 응원차 함께 다닌다고 함. 진행자인 신동엽이 이현경을 소개할 때 “오늘도 현경씨는 아름다운 내 조 뽀뽀” 이라는 자막이 꽃그림과 함께 화면에 나옴.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온 이현경의 행위를 ‘꽃’과 ‘아름다운’이라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수식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은, 응원하러 온 행위 보다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려는 시도임.	
JTBC <아는 형님> 03.23 (172회)	소이현이 희망작공으로 서장훈과 강호동을 택한 이유가 ‘키 크고 잘생겨서’라고 하자 다른 출연진들이 서장훈과 강호동을 비교하며 강호동의 외모를 조롱함. 더불어 인교진 소이현 사이에 아들이 나왔을 때 얼굴이 서장훈과 강호동 중 누구를 닮으면 좋을지 선택하라고 하자, 김희철은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이수근은 “정말 운이 없는 거네요”라고 하면서 출연진 모두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03.07 (2회)	<미스트롯>의 심사위원들은 끊임없이 여성 출연자들의 몸매, 얼굴을 평가. 참가자들 내에서도 외모 경쟁이 발생하고, 자막은 “예쁜 애 다음으로 등장한 예쁜 애”와 같은 표현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조장함.	
tvN <수미네 반찬> 03.13 (41회)	게스트 조수로 출연한 윤다훈은 추운 날씨에도 얇은 옷차림으로 등장해 김수미가 “왜일이나?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젊어보인다” 라고 칭찬, 윤다훈은 “최근에 장나라 씨 아빠 역할을 맡았었다”라며, “아버지 역할로 출연해서 나이가 들어보이게 나와서 (중략) 요즘 어려 보이려고 반바지 입고 다녀요”라고 답하며 ‘나이 듦’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개그콘서트> 03.10 (990회)	<랜덤 율화통>은 서태훈이 랜덤으로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는 컨셉. 이때 남자끼리 영상 통화가 접속되면 서로 못생겼다고 욕을 하지만 ‘여성’ ‘베이비페이스’와 같은 키워드를 설정해 ‘예쁘다’고 여겨지는 여성이 나오면 바로 자세를 바꾸며 “너무 미인이시네요”라고 말함. 이는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외모를 미화하거나 조롱으로 삼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표범, 티라미수,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출연자 3명의 외모를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코너. 예를 들어 한 출연자가 ‘욕 먹어야 오래 산대’ 라고 말하자 다른 출연자는 ‘이렇게(이런 외모로) 오래 살아서 뭐하게’ 라고 말하며 못생긴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음.	
KBS2 <살림하는 남자들> 03.06 (104회)	출연자 김성수의 딸 김혜빈의 이모는 ‘중학교 교복 입은 언니들 중에 너처럼 뚱뚱한 애들 못 봤어’라며 김혜빈의 몸을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 발언을 함. 이에 김혜빈은 살은 키로 가고 건강한 게 좋라며 본인 몸을 긍정하지만, 주변인들은 김혜빈을 설득하려고 하고 심지어 진행자들은 ‘혜빈 옆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다’라며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조장함.	
MBC <라디오스타> 03.06 (607회)	방송은 게스트로 출연한 이주연을 ‘넘사벽 열짱’, ‘미모 가리게’, ‘5대 열짱’이라는 자막, 사진, 묘사를 통해 외모를 강조하는 토크를 진행함. 이주연은 “그때 날렸죠. 지금 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5대 열짱으로 박한별 언니, 구혜선 언니, 저”라고 말하며 “내가 등교하면 남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힘들었는데 우산으로 ‘미모를 가릴 수 있어서’ 비오는 날을 좋아할 정도였다”며 그때의 인기를 묘사함. 이처럼 이주연의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N <아내의 맛> 03.19 (39회)	춘계 야유회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팀을 나누는 장면. '잘생긴팀'과 '못생긴팀'으로 나누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tvN <코미디 빅리그> 03.10 (303회)	이국주는 여성 방청객에게 '여자들이 항상 관리해야 할 것' 리스트를 권함. 그 리스트에는 여성의 겨드랑이 관리, 뱃살관리가 적혀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외모 기준으로써, 제모를 하지 않고 뚱뚱한 여성은 '정상적인 여성상'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함	
MBN <속풀이쇼 동치미> 03.09 (330회)	배우 김선경의 토크차레가 되자 주위에서는 '남성을 설레게 하는 미모다'며 김선경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외모를 평가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03.07 (2회)	한 출연자가 노래 부르기 전 자기소개에서 전직 치어리더임을 밝히자마자, 심사위원인 이무송은 합격을 의미하는 하트를 바로 누름. 이는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무송 부인이자 또 다른 심사위원인 노사연이 화를 내면서, 출연자는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남성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함.	
	미스트롯은 여성 성 상품화 논란으로 2002년 지상파에서 퇴출된 미인대회가 컨셉임. 오로지 여성 참가자들로 구성되며 참가자들 모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섹시하거나 귀여운 표정을 지음. 이는 참가자들의 몸을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객체로 전략시키는 여성 성적 대상화에 해당함.	
	미스트롯 지원자이자 전 아이돌 출신인 헤미에게 심사위원들은 섹시댄스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카메라는 춤추는 헤미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함. 남성 심사위원인 이무송은 헤미에게 '오늘 굉장히 옷을 조신하게 입고오신 거죠? 아주 무대가 후끈 달아오르겠어요' 라고 발언함. 후끈 달아오른다는 표현은 (성적)흥분이나 긴장이 고조된다는 의미로 출연자를 성적 대상화한 남성 심사위원의 성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03.07 (2회)	<미스트롯> 지원자인 검지는 ‘안타깝다’는 내용의 가사인 “잔잔”을 부르면서, 본 가사와는 다르게 술 마실 때의 잔 하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싶어 머리에 소주병을 달고 나왔다고 함. 이는 자극적인 멘트와 노출로 성적인 매력을 직접적으로 어필하고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기존의 주류광고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성적대상화에 해당.	
tvN 〈코미디 빅리그〉 03.10 (303회)	허안나는 본인의 엉덩이를 부각시키며 ‘여자는 S라인이지’라고 말함. 이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된 시선을 내재화하여 여성들 스스로 ‘남성’에 의해 평가받는 대상으로 여기는 현실을 보여줌.	

(6)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개그콘서트〉 03.10 (990회)	<표범, 티라미수,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남자 3명(송영길, 홍현호, 정진하)이 토크를 진행하다 음악이 나오면 퇴폐적인 춤을 추는 코너. 출연자들은 딱 달라붙는 바지와 여성 속옷을 연상시키는 선정성이 강한 옷을 입고, 중간마다 토크 내용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춤을 추. 특히 마지막에는 춤을 추며 손을 성기 주위로 가져가고 카메라는 이를 강조해 편집함.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개그콘서트〉 03.24 (992회)	<비둘기 마술단>에서 ‘미녀’ 마술사 안소미가 방청객이 고른 옷과 같은 옷을 입는 마술을 함. 고를 수 있는 옷은 모두 비키니이며, 스타킹 또한 선정적인 색깔임(망사 등). 대중들은 안소미가 섹시한 옷으로 갈아입는 마술을 기대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 개그맨인 심문규의 옷이 바뀌어 있음. 안소미와 심문규가 옷을 보여주는 방식은 모두 선정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중인 ‘미녀’ 마술사인 안소미의 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성적대상화를 이용한 개그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03.21 (4회)	<내일은 미스트롯>의 본선 1차 현역부 팀 미션에 임하는 출연자들의 댄스 장면, 지나치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의상(가죽, 망사, 쇠사슬)을 입고나온 출연자들은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추고, 이런 출연자들을 보며 남성 심사위원들은 ‘호흡곤란’을 내비침.	 

(7) 다양한 섹슈얼리티 또는 연애/가족의 형태에 부정적인 편견 조성 (기타)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개그콘서트> 03.10 (990회)	<과한 나라>코너에서는 내시로 분장한 개그맨(송왕호)이 근육질을 강조하기 위해 상의를 노출한 트레이너와 함께 대비되며 등장하고 내시는 성기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부끄러워하는 자세를 취함. 전형적인 '남성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트레이너와 내시를 대비시킴으로써 남근의 유무로 성별을 이분화하고, 남근으로 상징되는 '남성성'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희화화하여 조롱의 대상으로 삼음. 더 나아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의 대상으로 삼음.	
tvN <코미디 빅리그> 03.03 (302회)	이은형, 장도연, 허안나는 친구 이은지의 아이 돌잔치에 참석함. '너희는 결혼 아직이야?'라는 이은지의 질문에 3명의 출연자들은 자신들은 결혼이란 제도가 별로이기 때문에 '비혼'을 지향한다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행동을 취함. 즉 비혼은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 아닌, 결혼하지 못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음.	
tvN <코미디 빅리그> 03.10 (303회)	이국주는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 온 방청객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 뒤 왜 애인이 없는지 알려주겠다고 함. 이는 동성끼리 온 일행은 연인이 아니라는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임.	
MBC <나 혼자 산다> 03.15 (285회)	나 혼자산다의 고정 출연자인 한혜진, 전현무가 결별을 이유로 방송을 잠시 하차한 상황. 이시연은 앞으로 출연자들 내에서 더 이상의 연애는 안 된다며 '남녀끼리 선물 주고받기 금지'를 제안. 이는 연애는 오로지 이성끼리 가능하다는 이성애중심적인 사고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N <속풀이쇼 동치미> 03.09 (330회)	개그맨 엄용수는 하루라도 혼자 사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롭다고 단정함. 독신 혹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삶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음.	
MBN <속풀이쇼 동치미> 03.16 (331회)	여예스더(의사)가 본인의 출산이야기를 나누자 의사 함익병은 '여'의사들이 아이를 낳으면 동료 의사들이 대신 당직을 서줘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함. 이에 여예스더는 본인은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4주 만에 출근했다고 말하고 함익병은 어쨌든 4주 동안 동료 의사가 당직을 서준 것이라며 반박함.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빈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임금 보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임. 함익병이 언급한 '피해'는 사실상 국가 지원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방송에서는 이 문제가 여예스더 개인에게서 비롯된 문제처럼 다룸. 이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논의를 오로지 여성의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편견을 조장함.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 ② KBS2
- ③ MBC
- ④ SBS
- ⑤ JTBC
- ⑥ 채널A
- ⑦ MBN
- ⑧ TV조선
- ⑨ tvN

3. 프로그램 명(꼭지명) :

4. 방영일시 : 2018년 월 일() : - :

5.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 ② 08:00-10:00
- ③ 10:00-12:00
- ④ 12:00-14:00
- ⑤ 14:00-16:00
- ⑥ 16:00-18:00
- ⑦ 18:00-20:00
- ⑧ 20:00-22:00
- ⑨ 22:00-24:00
- ⑩ 24:00-06:00

6.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분	인원수	이름
6-1. 전체		
6-2. 여성		
6-3. 남성		

7. 출연자 분석

7-1. 이름				
7-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7-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7-4.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㉔ 기타_____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출연자·초대손님	
	④ 리포터	⑤ 기타		

8.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1. 성평등적내용

-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성차별적내용

- 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 ②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 방송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이도록 하는가
- ③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 방송은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남성 의존적 성향 강조하는가
 -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④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특정 성별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⑤ 외모지상주의 조장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⑥ 성적대상화
 - 방송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⑦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방송은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가
- ⑧ 선정성
 - 방송의 흐름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가
- ⑨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일 | 2019년 5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